

“비거리 증가 두고 볼 수 없어” … 골프공 성능 제한 움직임

앞으로 프로 골프 대회에서 선수들의 호쾌한 ‘장타 쇼’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15일 ‘머니S’에 따르면 세계 골프 규칙을 관리하는 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프로 대회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골프공 성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비거리 때문에 골프의 본질이 훼손되고, 골프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R&A와 USGA는 3년 전 공동 조사를 통해 프로 선수들의 비거리가 자꾸만 늘어나는 건 ‘골프에 해롭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PGA 투어 평균 비거리는 약 286야드였다. 300야드를 넘긴 선수는 9명이었다. 하지만 올 시즌 PGA 투어 선수 평균 비거리는 297.2야드다. 300야드를 넘긴 선수는 무려 83명이다. 선수들의 피지컬과 연습 방법 등의 발달과 맞물려 클럽과 골프공 등 장비의 발전도 비거리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장타자가 늘어나면서 대회 코스가 길어져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둘과 약품 사용도 증가해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R&A와 USGA의 주장이다.



티샷 거리가 늘어나면서 롱아이언 등 다양한 클럽을 사용할 기회도 줄었다. 코스 공략이 아닌 드라이버 샷을 친 후 웨지 등을 이용해 그린에 공을 옮린 뒤 퍼터로 훌어웃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 때문에 골프가 재미없어지고 본질도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A와 USGA는 드라이버 샤프트 길이 상한을 두는 등 드라이버 성능 제한에 나섰지만, 궁극적인 비거리 증가 억제책은 골프공 성능에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R&A와 USGA는 골프공을 시속 127마일(약 204.4 km)의 스윙 스피드로 쳤을 때 비거리가 317야드 이상 날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3년 안에 골프볼 성능 제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안이 채택된다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발효된다.

다만, 이 규정은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골프공 성능이 제한되면 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의 드라이버 티샷 거리는 약 15야드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공 성능 제한이 실제 투어에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선수뿐만 아니라 골프공 제조사 등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PGA 투어는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반응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골프공 제조사인 타이틀리스트는 “변경된 규칙으로 인해 골퍼들의 열정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위축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사진=shutterstock

OCEYELASH

비밀의기술 오롯한 퀄리티의
속눈썹 연장 서비스



Special Offer

첫 방문시

“Ocelyelash town news”를
언급해 주시면 \$20 할인혜택
해드리겠습니다.

Expire date April 2023

<수강생 모집>

한 사람 한 사람 집중적인 수업,
프라이빗 일대일 수강생 모집 중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재수강 이제는 당신의 성장할 기회!

- 한올 한올 정확한 1:1 시술 •
- 100% 고급 재료 사용 •
- 모근 보호시술로 건강한 속눈썹 •

상담 및 예약

714.948.0006

4128 w commonwealth ave.
#203, Fullerton CA 92833



방 하나만! 구들온돌로 바꿔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goodleusa.com

310. 650. 9638